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재 선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작품연구논문

채송화(Moss Rose)이미지를 통한  
심상 표현 연구

200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

조연정

채송화(Moss Rose)이미지를 통한  
심상 표현 연구

이 재 선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

조 연 정

# 인 준 서

조연정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현대인들은 급속한 과학 문명의 발달로 정신적 불안과 위기감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현실의 생존경쟁과 사회에 대한 각박함, 중압감으로부터 현실세계를 탈피하고 동심으로 돌아가 그 시절을 추억하고픈 욕구를 가지게 된다. 과거의 회상을 통해 현실세계를 반성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그리워하는 인간의 심리는 본 연구의 중요한 표현대상이다.

본 연구는 추억을 상징하는 채송화의 이미지를 통해 어릴 적 동심의 세계를 조형적으로 연구 분석 하였으며 주관적인 관점과 해석을 통해 작품에 표현하였다.

추억은 복잡한 현실에 둘러싸여 순수함과 꿈을 잃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아름다운 기억을 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며 정신적 여유를 가지고 현재까지 살아온 과거를 되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다양한 감정표현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로서 채송화의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채송화는 생성, 변화, 순환, 소멸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인간사를 대변해 준다. 일반적인 꽃의 의미를 넘어 지나간 흔적 위의 많은 이야기들을 화폭 안에 표현해 추억이라는 주제를 부각시키려고 하였다.

사람마다 과거의 경험과 추억이 다르듯이 채송화는 연구자의 어린 시절을 대변하는 일상적 소재이며 경험적 요소를 나타내주고 있다. 표현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연구자가 성장하면서 겪었던 감정과 기억들을 추억의 상징성으로 이끌어 냈고, 조형적인 측면에서는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고자 채송화의 이미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하여 생동감을 표현하였다. 여기에 추억을 회상하는 시간성을 강조하기위해 유동적인 선을 삽입하여 공간감의 다양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의 제작방법으로는 납방염을 사용하여 세밀하게 천에 스며드는 염료의 접침, 소재와 디자인의 중첩표현을 이용하여 채송화의 운동감과 시간의 연속성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납방염은 직물 표면 위에 각종 납을 녹여서 방염시키는 방법이다. 납은 열을 가하면 쉽게 녹는데 이렇게 녹인 납으로 칠해진 부분이 염색되지 않는 특성을 이용하여 문양을 나타내는 염색 방법이다. 이는 연구자의 내면세계를 독창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되어 작품 제작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채송화의 형상을 통해 본인의 심상적인 표현을 서술하고자 하였으며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감성을 해석하여 하나의 공간에 표현함으로써 제 3자에게 추억의 감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채송화를 현재와 과거를 이어줄 수 있는 추억의 상징적 매개체로 하여 현대인들의 잊혀진 아름다운 지난날을 회상하고 느낄 수 있도록 내적성찰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1. 연구목적 .....	1
2. 연구내용 및 방법 .....	2
II. 본론 .....	4
1. 이론적 배경 .....	4
1) 채송화의 정의 .....	4
2) 채송화의 상징성 .....	6
2. 채송화 형상을 통한 조형적 표현 .....	8
1) 추억의 심상적 표현 .....	8
2) 채송화의 이미지 표출 .....	11
3. 작품설명 .....	13
1) 작품제작 방법 및 과정 .....	13
2) 작품분석 .....	17
III. 결론 .....	49

## 참고도판

## 참고문헌

## ABSTRACT

## 작 품 목 차

【작품 1】 초자아 (Super - Ego) .....	17
【작품 2】 기다림 (Awaiting) .....	20
【작품 3】 향연 (Mother's scent) .....	23
【작품 4】 꽃들, 바람을 가지고 논다(Play with flowers, wind) .....	26
【작품 5】 내가 채송화처럼 조그마했을 때 (When I was little like a Moss Rose) .....	29
【작품 6】 영광 속에 위치하다(Positioned in the glory) .....	32
【작품 7】 이 숙(異熟, Another growth) .....	35
【작품 8】 회귀(回歸, Recurrence) .....	38
【작품 9】 감춰진 열정(Concealed passion) .....	41
【작품 10】 그리움의 이야기(Story of nostalgia) .....	44
【작품 11】 장미빛 인생(La Vie En Rose) .....	47

# 도 판 목 차

<도판1.> 채송화의 이미지

<도판2.> 추억, 기억의 잔상

<도판3.> 중첩 이미지

<도판4.> 조지아 오키프

# I. 서론

## 1. 연구목적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오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뿐 아니라 인위적인 아름다움을 창조해왔다. 시대에 따라 미의식은 변화하지만 역사가 흐르고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대상이 있다. 그것은 인간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미의 상징으로 만인에게 회자(回刺)<sup>1)</sup> 되는 아름다움의 대상인 꽃이다. 꽃은 인간에게 순수하고 숭고한 정신을 가지게 해주며, 끊임없이 미의식을 자극하고 창조에의 충동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인간은 꽃의 형태에서 아름답고도 화려함을 감지하여 미술 활동으로 이끌어 내었다.<sup>2)</sup> 또 인간은 예술이란 형식을 바탕으로 자연을 대상으로 미를 추구하고, 다양하고 주관적인 경험을 통하여 이미지로 표출하기도 한다.

본 연구자는 자연의 대상인 꽃과 시간의 표현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에 형상화하고자 하였다. 꽃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는 인간의 심상적 의미를 대변해 주는 소재로 삼아 조형화되기도 한다. 그래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계산적이고 물질적인 면에 치우쳐 상실되어 가는 인간의 감성을 꽃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특히 꽃 중에서도 채송화를 선택한 이유는 어린 시절 아름다운 추억을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상징물로 생각되었다. 채송화가 가지는 특성이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기쁨, 슬픔, 외로움, 그리움 등의 감정을 주관적인 관점에서 상징적으로 형상화하고 감성적으로 순화시켜 위로해줄 대상이 필요함에 본 연구의 목적

1) 회자(回刺) - 회와 구운 고기, 칭찬을 받으며 사람의 입에 자주 오르내림을 이르는 말.

2) 이청자, 『관화 기법을 통한 꽃 이미지 표현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2004, P12

이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자는 채송화를 주제로 하여 잃어버렸던 감성을 불러일으키고 추억을 바탕으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위안을 받고자 하였다.

##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애상(哀想)을 위로 하고 과거의 순수했던 기억 속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상을 채송화의 이미지를 통해 추억이라는 조형적인 언어로 풀어가고자 한다.

먼저 이론적인 측면으로 자연의 대상물인 꽃(채송화)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그리고 표현적인 측면으로는 꽃과 과거의 시간을 나타내어 주는 형상들을 복합적으로 조형화 시켜 화면의 재구성, 색채의 사용, 공간감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본 연구자의 순수하고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매개체로 사용되는 채송화는 움직임이 거의 없는 고정되어진 형태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고정되어진 형태를 선명한 칼라와 역동적이고 다양한 시점에서 보여 지는 형상으로 재구성하여 표현하였다. 여기에 시간의 개념을 삽입하여 추억 속으로 회귀하고 싶어 하는 연구자의 내면세계를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순색에 가까운 채송화와 운동감이 느껴지는 유기체들의 중첩되어진 표현, 시간의 영속성을 표현해주는 유동성 있는 형체들을 가장 조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작품 제작 기법으로 납방염(蠟防染,BATIK)을 선택하였다. 이 기법은 꽃 특유의 이미지와 여러 단계의 방염과정, 색감의 농담 변화로 평면의 사각 틀에서 다양한 공간감을 연출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다. 또한 현대인들

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와 자칫 평면에서 오는 한정된 공간감의 다양성과 중첩의 효과적인 표현을 위해서 실크세리신 분해기법<sup>3)</sup> 및 납의 분사 기법<sup>4)</sup>을 이용하였다.

- 
- 3) 실크세리신 분해기법 - 실크는 약 70%의 피브로인과 약 30%의 세리신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탄산소다와 효소로 세리신을 분해하여 실크에 투명성과 불투명성, 부드러움과 거칠음의 two-ton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법이다.
  - 4) 분사기법 - 피염물 위에 디자인한 부분을 납(과라핀, 밀납)으로 방염하고 배경 부분에 다양한 공간감과 색채를 표현하기 위해 납을 붓에 묻혀 떨어뜨려 분사하는 방식이다.

## II. 본론

### 1. 이론적 배경

#### 1) 채송화(Moss Rose)의 정의

채송화(학명:Portulaca grandiflora)는 화단에 심어 기르는 남미 원산의 춘과 일년초이지만 가온한 온실에서는 월동이 가능하다. 건조한 여름 띄약별 밑에서도 아름다운 꽃이 피는 왜성다육(矮性多肉)<sup>5)</sup> 식물로 흔히 대문 주위나 처마 밑 양지 바른 곳에 심거나 아파트 베란다에 행잉 바스켓(hanging basket)<sup>6)</sup>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는 같은 쇠비름과의 식물로 모양이나 생태가 채송화와 비슷하지만 8~9월경 노랗고 작은 꽃이 피는 쇠비름이라는 풀이 있다. 채송화는 잡초로 취급될 만큼 번식력이 아주 강한 식물로, 잎의 모양이 말의 앞이빨 같다 하여 마치현(馬齒莧)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또 장명채(長明菜)라 하여 이 풀로 나물을 만들어 먹으면 오래 산다 하였다. 양마치현, 따꽃으로 불리웠으며, 민간에서 종기·살충·급성이질·임질 등을 치료하는데 이용하였다.

꽃의 생김새를 도식화 되어진 그림으로 설명해보면<그림1> 모란꽃을 축소 한 것 같으며 홀잎, 곁잎이 있다. 채송화는 원래 홑꽃이지만 요즘은 개량된

5) 왜성다육(矮性多肉) - 생물의 크기가 그 종(種)의 표준 크기에 비하여 작게 자라며 줄기에 살이 많은 특성을 가진 품종을 말한다.

6) 행잉 바스켓(hanging basket) - 실내의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식방법으로 곁이화분이라고도 한다. 사방에서 감상할 수 있는 방법과 한쪽면만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실내 뿐 아니라 실외의 베란다, 처마 및 창가, 무미건조한 담장 등에 배치하면 훌륭한 장식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겹꽃품종이 나오고 있다. 개량종은 꽃 크기도 약간 크고 색깔도 훨씬 선명하다. 다육질의 몸체 내에 수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물은 흠이 건조해지면 주도록 하는데 다습보다는 오히려 건조를 좋아하는 호건성(好乾性)식물이다. 줄기를 4~5cm 끊어 모래에 꽂아도 뿌리가 내릴 만큼 강한 생명력을 지녔다. 1년생 초화류이므로 매년 씨를 뿌려 번식시킨다.

씨앗은 광택이 나고 좁쌀크기 정도로 아주 작다. 줄기는 가늘고 길며 잘 분지되어 옆으로 뻗어 있으며 높이는 10~20cm이고 4~5월에 뿌리면 7월 중순~9월 하순에 걸쳐 개화한다. 잎은 어긋나며 다육질, 원주형, 길이 1~2cm, 끝이 뭉툭하고 잎겨드랑이에 흰 털이 난다. 잎자루는 없으며 꽃은 가지 끝에서 1~3개씩 피며 지름 2.4~4.0cm, 밤에는 오므라든다. 꽃자루는 없으며 꽃받침 잎은 2장, 막질, 넓은 난형, 길이 5~7mm이다. 꽃잎은 5장 또는 그 이상이고 도란형이며 끝이 파진다. 수술은 많고 앞술대는 5~9갈래이다.



<그림 1> 채송화의 각 부위의 명칭과 꽃잎의 색

색깔은 도색(桃色)<sup>7)</sup>, 적색, 황색, 자색, 백색 등이며 햇볕이 쬐이는 낮에만 피고, 저녁이나 비가 내리는 날에는 피지 않는 특징이 있다. 토질은 가리지 않고 심을 때 한번 물을 준 정도면 물을 주지 않아도 잘 자라며 순을 자주 쳐주는 편이 가지가 많이 생겨 꽃이 많이 핀다. 번식은 실생법에 의하는데 실생 외에도 새 줄기를 꺾으면 얼마든지 번식시킬 수 있다. 줄기가 9~12cm 가량 뻗으면 손톱 끝으로 줄기 절반 정도를 잘라서 밑에 꺾으면 모두 발근하여 새로운 모가 된다. 잘려진 쪽의 가지는 결눈이 돌아서 무성하여 큰 포기가 되는데 이 결가지도 물론 번식시킬 수 있다.

채송화는 봉선화나 맨드라미, 과꽃과 함께 전래식물의 하나로, 꽃말은 귀여움, 순정, 가련함, 순진, 천진난만, 수련, 우정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 2) 채송화의 상징성

예술은 인간의 감정을 상징하는 형식들의 창조이며 수잔 랭거(Susanne Langer)는 "예술은 인간의 감정을 상징 한다"라고 말했다. 예술작품은 인간의 감정을 추상화하고 그림으로써 상징하고 있다. 예술은 사실주의 작품이라고 해도 대상을 그대로 복사하는 재현이 아니라 주관에 의해 재구성된다. 그러나 감정은 재현작품이라고 해도 재현에 의해서는 상징되지 않는다. 모든 작품들은 인간의 감정형식들을 닮고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그 유사함이 곧 재현을 이룰 정도가 되고 있지는 않다.<sup>8)</sup> 예술가의 경우 자신의 예술적 체험이나 행위의 동기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어떠한 대상을 관찰하고 작품으로서 형상화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을 이입하게 된다.

7) 도색(桃色) - 복숭아꽃의 빛깔과 같이 연한 분홍색

8) 조지딕키, 『미학입문』, 서광사, 1980, P111~113

꽃은 다양한 상징성이 부여되며 일반적으로 아름다움의 상징, 존경과 기원의 상징, 재상(災祥)<sup>9)</sup>으로서의 상징을 들 수 있다. 꽃은 시각적, 상징적으로 안정감과 함께 다양한 형태가 지니는 조형미와 감각적 형태를 이루는 부드럽고 유연한 곡선의미를 지니고 있어 오랫동안 우리의 친숙한 예술대상이 되어왔다. 꽃은 생명감, 순수성, 그리고 여성적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며 그 자체가 완전한 조형미를 갖추고 있어 예술의 풍부한 소재가 될 수 있었다. 우리는 꽃을 대하면서 일반적으로 '아름답다'라는 언어적 표현을 자주한다. 이는 꽃이 지니는 형태와 색채의 조형적 요소가 연출하는 조화와 균형에서 비롯되는 시각적 만족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꽃은 줄기, 뿌리, 꽃잎, 잎으로 이루어진 유기적 형태로 지상위에 노출되어 있는 꽃과 줄기의 형태적 특성으로부터 각각의 상징적 이미지를 추출하며 이 두 개의 상징적 요소가 결합하여 꽃의 새로운 이미지를 형상화 시킬 수 있다.<sup>10)</sup>

꽃은 생성, 변화, 순환, 소멸이라는 과정을 지닌 존재로서 자연의 모든 형상은 생의 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탄생, 성장, 죽음으로 이어지는 순환과정을 꽃이라는 주제로 표현하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채송화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 꽃의 생명성이 절정일 때의 만개한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인간의 삶 중에서 가장 찬란했던 순간을 채송화의 만개한 모습으로 표현하고자 했으며 채송화 주변에 유기체적인 형상을 투여하여 회상에 잠기게 하였다.

채송화의 만개한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하여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관찰자가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 있음을 표현하였다. 그 이유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각자 경험하고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작품 속에서 채송화를 통해 나타내고자 한 것은 채송화의 꽃말처럼

9) 재상(災祥) - 재앙이 생길 징조 또는 재앙

10) 이수정, 『식물형태를 의인화한 조형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1993, P91

럼 귀여움, 순정, 가련함, 순진, 천진난만, 수련, 우정을 통해서 현대인들에게 어린 시절 동심세계로 돌아가 추억을 회상하며 마음의 위로를 얻고자 하였다.

## 2. 채송화 형상을 통한 조형적 표현

### 1) 추억의 심상적 표현

이미지란 형상(形象)<sup>11)</sup>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생긴 상을 뜻하는 것으로 표상(表象)<sup>12)</sup>, 또는 심상(心象)<sup>13)</sup>이라고도 한다. 넓은 의미로는 생각이 떠오르는 모든 것을 가리키고 좁은 의미로는 그중에서도 특히 감각적, 구체적 성질을 갖는 것을 가리킨다. 예술적 의미로 이미지란 새롭게 만들어진 또는 재생산된 시각으로 작가 내면의 마음속에서 존재한 상이다. 따라서 이미지는 사람에 따라 저마다 다를 수 있으며 또한 명확성이나 복잡성도 저마다 다른 것이다. 모든 이미지는 사물을 보는 시각을 구체화 하여 언어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풍부하다.<sup>14)</sup> 이러한 이미지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예술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심상(心象)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상은 일차적으로 외부의 사물들을 마치 그림이나 사진처럼 표상해 둔 것으로 과거의 감각적이거나 지각적인 경험과 기억에서 오는 심적인 재현을

11) 형상(形象) - 감각으로 포착한 것이나 심중의 관념 등을 예술가가 어떤 표현수단에 의해 구상화 하는 일이다.

12) 표상(表象) - 상징, 감각을 요소로 하는 심적 복합체이다. 어떤 대상을 뜻하는 직관적인 의식내용이며 지각 표상, 기억 표상 등을 총괄하여 말한다.

13) 심상(心象) - 이전의 감각에 의해 얻은 것이 심중에 재생된 것을 말한다. 시각적, 청각적, 운동적 및 촉각적인 것으로 분류된다.

14) 존. 버거, 『이미지-시각미디어』, 동문선, 1990, P28

뜻한다.<sup>15)</sup> 어떤 사물을 볼 때 개인의 경험과 환경, 사고방식이 제각기 다르며 각 개인마다 그 사물에 대한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지각은 매우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이를 지각적 심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지각적 심상을 이루는 정신적 이미지는 시각경험과 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외부의 시각적인 자극만으로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각 경험의 풍부함은 사고에 영향을 주어서 다양한 영상을 만들어내고 다시 풍부한 상상력을 갖게 하며 사고를 상상 속에 옮겨 놓는 능력을 확대 시킨다. 따라서 시각 표현은 감각적 요소를 기계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실재를 지각하는 다양한 개인의 심상에 의해 이미지화 되고 보다 창의적이며 아름답게 표현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렇듯 이미지는 심리적 영역에 속하는 개념이며 사람의 마음과 깊은 관계가 있다. 즉, 조형예술가가 어떤 이미지를 받아서 창작함에 있어 기억과 심상에 의해 그 대상에 대한 작가의 고유한 정서를 표현하게 된다.<sup>16)</sup> 작가는 자신의 마음속에 그려지고 있는 심상을 자신에 의해 해석하거나 새롭게 부여된 의미를 작품에 나타낸다. 그리고 오래된 과거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 여러 기억들이 겹쳐서 새로운 이미지로 회상되며 작품을 표현함에 있어 이러한 기억요소들을 하나하나 재구성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이처럼 추억은 과거에 경험했던 것이 두뇌에 저장되었다가 후에 재구성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삶은 합리적이기 보다는 이미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적인 사고이며 이것들을 재구성하여 새롭고 신비로운 이미지로 다시 탄생시킨다.

심리학자인 칼 융(C. G. Jung, 1875-1961)은 상징적인 체계를 통해 이루어진 기억의 꿈은 필요에 따라 나타났다가 망각되어지기도 하는데 특히 기억이 고착된 추억은 꿈과 마찬가지로 압축되는 과정을 거친 상징적인 것이어

15) 김재근, 『이미지즘 연구』, 정음사, 1973, P14

16) 오미경, 『기억과 감성 표현의 이미지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2006, P8

서 그 기억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비밀스러운 신비성을 띄고 있으며 잃어버렸던 기억은 잠재의식의 상태로 보관되어지다가 시간이 지난 후 체험한 것과 연관되어 자연스럽게 표출된다고 하였다.<sup>17)</sup>

본 연구에서는 지나간 기억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얻어진 기억의 이미지를 연구자의 상상력과 감성에 의해 재창조하고자 하였다. 연구자의 추억세계는 사면이 바다인 강화도에서의 유년 시절을 의미한다. 광활한 자연의 중심에 서서 자연과 벗하는 모습은 고향에 대한 향수를 품는 감성이라고 할 수 있다. 미움과 질투, 질서도 필요 없는 자연주의 속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도심으로 나와 현대인들과 경쟁하며 정신적 불안과 위기감을 갖게 되면서 그 중압감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자유로웠던 그 시절의 추억을 그리워하게 되었다. 감성과 융화된 상태의 풍경이 형상화된 추억은 과거에 경험한 것이 신비한 이미지로 재생 또는 재구성되어 나타난다. 즉, 작가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세계를 화폭에 담아냄으로써 추억은 새롭게 재창조되고 예술로서 표현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삶을 확인하고 표현하며 기억하고자 한다. 그들이 경험한 것들을 그들만의 방식으로 기억의 이미지를 구체화하여 내면의 세계를 확인하고 현재의 삶을 반성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자는 개인의 경험과 추억의 이미지를 심상화하여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인들의 내면 속 따뜻한 감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

17) 칼 구스타프 융, 『인간의 무의식의 성장』, 집문당, 1983, P35

## 2) 채송화의 이미지 표출

예술은 인간의 감정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표출(表出)<sup>18)</sup>하는 창조활동이다. 객관적인 사실의 표현이 아니라 어떤 현상을 관찰하고 작가의 생각과 감정에 의해 재현되고 재구성되는 창조활동이라 할 수 있다. 작가는 특정한 소재를 대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감정이입을 통해서 형상화시키는 작업을 한다. 그리고 작가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화폭에 담아내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꽃을 소재로 상징화하였는데 꽃에서 보여 지는 색채와 조형적 요소는 시각적인 만족감과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꽃 중에서도 채송화를 형상화한 이유는 연구자의 어릴 적 추억들이 가지고 있는 연관성을 재현하기에 적절하였다.

바쁜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내면에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는 동심의 세계를 채송화를 소재로 하여 표출하고자 하였다. 채송화의 이미지는 다양한 형태로 표현해서 움직임의 강조하였으며 선명하고 원색에 가까운 색채를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즐거움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배경에는 무채색을 주로 사용하여 채송화의 선명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려 하였다. 이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감정과 정서, 인간사의 고난과 역경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 채송화의 정적이기보다는 동적인 이미지표현과 시간의 개념을 포함시켜 과거의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형태의 변형은 작가의 의도를 강조하기 위하여 화면상의 필연성, 작가의 의도와 목적 하에 확대·축소·단순화의 방법들로 화면에 생동감·대비·강조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조형의식을 드러내고

---

18) 표출(表出) - 겉으로 나타냄. 정신 활동에 수반되는 신체적인 변화, 호흡운동, 근육운동, 선분비의 변화 같은 것을 말한다.

있다.<sup>19)</sup> 이러한 방법으로 예술은 작가의 주관적인 감성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채송화에 주목함으로써 연구자의 과거 기억과 내면속에 잠재되어 있는 추억이라는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한다. 채송화의 줄기, 수술, 잎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변형하고 움직임은 강조하여 추억의 과장효과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면과 선들을 단순화하고 변형하여 중첩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중첩을 이용하여 시간성과 공간성을 살리고자 함이며, 반복적으로 구성하여 과거에서 현재까지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선의 표현은 한곳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화폭 안에 전체적으로 표현하여 인간의 삶에서 주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추억의 심상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따라서 추억을 통해 내면세계의 따뜻한 감성을 불러일으키고, 동심의 세계를 회상하는데 하나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는데 있다.

---

19)신강덕, 『꽃-생명 표현 방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2002, P8

### 3. 작품 설명

#### 1) 작품제작 방법 및 과정

우리가 사물을 보고 일상을 겪은 기억을 재현하는 과정은 이미지에 의해서이다. 이미지는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억의 빔장을 열어주는 시발점으로써의 역할을 해냄으로 기억의 끈 자락을 제공하여 개인의 고유하고 소중한 추억을 이끌어 내는 감수성의 파장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sup>20)</sup> 본 작품은 채송화<도판1>를 주제로 외면적 형태, 내재한 생명감과 화려한 색채의 사용으로 기억으로부터 추억을 이끌어 내려고 한다.

작품제작 표현방법으로 염색을 선택하고 염색 기법으로 납방염(蠟防染:Batik)을 이용하였다. 방염이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물들이고 싶지 않은 부분은 직물의 바탕색을 그대로 남겨두고 원하는 색으로 문양을 그려가며 아름다운 조화를 창조해내는 방법이다. 염료 또는 매염제(媒染劑)의 용액이 섬유재료에 침투하거나 고착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염제를 미리 날인한 다음 잘 건조시키고 직물에 염색을 하여 원하는 무늬를 낸다. 염료는 대부분 수용성이기 때문에 섬유에 한없이 흡수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방염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sup>21)</sup> 방염의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 재료에 따라 이름이 붙여진 방법이 있으며 본인이 주로 사용한 납방염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납방염은 공예염색 중 가장 세밀한 방염기법으로 각종 납(蠟: 밀납, 목납, 파라핀 등)을 뜨거운 열(90°C ~ 100°C)로 녹여 액체 상태가 되면 붓에 묻혀 작품에 방염을 하며 방염을 한 부분이 염색이 안 되게 하는 염색 기법이다.

20) 전성은, 『꽃 이미지에 의한 잠재된 추억의 파장』,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9

21) 서재행, 『공예염색기법』, 미진사, 1994, P133

어느 재료보다도 자유롭고 독창적인 표현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유롭고 밀도가 있는 공간형성에 효과적인 납방염은 연구자의 내면세계를 상징적으로 암시하는 생동적이고 개성적인 표현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을 제작하기에 앞서 염색은 직물과 화학반응을 통해 이루어지는 작업이므로 사전지식의 이해가 요구된다. 염색을 할 직물의 종류, 염료의 선택과 방법에 따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염직물로는 천연섬유 중 가장 견뢰도가 우수한 동물성 섬유인 견직물(絹織物:Silk)<sup>22)</sup>을 사용하였다. 견직물은 탄성이 좋아 구김이 덜 가고 산에 저항력이 강하며 흡수력, 염색성이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염료는 알칼리 성분에 약한 견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견, 모에 직접 염착하는 빛과 열, 물에 강한 수용성 분말 염료인 산성염료(酸性染料:Acid dye)<sup>23)</sup>를 사용하였다.

작품제작에 앞서 염색의 전 처리 과정으로는 정련(精練:Scouring)<sup>24)</sup>과 표백(漂白:Bleaching)<sup>25)</sup>이 있다. 정련은 염색할 천에 묻어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무기세제(탄산소다, 가성소다, 붕사, 규산소다), 비누(면비누, 수지비누, 마르세이유비누), 고급 알코올 세제 등이 정련제로 쓰이고 있

22) 견직물(絹織物 : Silk) - 명주실로 짠 천연섬유직물로 생사에는 세리신이라는 끈끈한 아교질이 섬유표면에 붙어있는데 이것을 제거함으로써, 매끄럽고 부드러우며 우아한 광택을 내는 특징이 있다. 견직물 특유의 우아한 멋으로 인해 고급 직물로 통하는데, 조직의 응용성이 풍부하고 탄성이 좋으며, 구김이 덜 가고 염색성이 좋아 침염(浸染)이나 날염(捺染)에 사용된다.

23) 산성염료(酸性染料:Acid dye) - 색소의 분자 속에 니트로기, 술포기, 카르복시기 같은 산성기를 지니고 있는 염료이다. 산의 성질을 나타내는 수용성 합성염료로, 황산이나 아세트산의 묽은 산성 용액 속에서 비단, 양모 등의 동물성 섬유에 물이 잘 든다. 값이 싸고 색상이 선명하며 높은 채도와 높은 일광 견뢰도, 열기에 강하며 염색이 간단하다.

24) 정련(精練:Scouring) - 천연섬유에 들어있는 잡물을 없애고 완전하게 표백이나 염색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일반적으로 석회나 소다류(탄산나트륨)를 사용한다. 섬유의 성질에 따라 그 방법이 다르고, 섬유 자체를 손상하지 않는 방법이 사용된다. 명주의 경우에는 연견(練絹)이라 하며 비누, 소다류를 사용한다.

25) 표백(漂白:Bleaching) - 섬유 내 함유된 색소성분을 산화하거나 환원하여 분해 제거함으로써 섬유의 백도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산화표백과 환원표백으로 나뉘고 염소계표백제와 산소계표백제가 있다.

으며 정련에 의해 제거되지 않았던 천연색소를 파괴시키고 섬유를 순백으로 하는 공정을 표백이라 한다. 각종 섬유에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함유되어 있는데 불순물에는 납질, 단백질, 펙틴질, 비누질, 광물질, 색소물질 등의 천연불순물과 제작과정 시 묻은 풀, 기름, 쇠의 녹 등의 부가적 불순물 등이 있다. 이러한 불순물들은 작품 제작 시 염료의 침투를 방해하고 균일한 염색을 할 수 없게 하여 섬유가공처리에 곤란을 가져온다. 따라서 염색 전에는 알맞은 정련 및 표백을 하여야 한다. 염색하고자 하는 천 중량의 20~30 배 되는 미지근한 물에 정련제를 천 무게의 3%정도를 넣어 30~40분간 담근 후 깨끗한 물에 여러 번 잘 헹구어 틀에 팽팽하게 고정시켜 건조시킨다. 이렇게 정련과정을 거친 후 본격적인 납방염 작품 제작에 들어간다.

먼저 사각 틀에 팽팽하게 고정되어 있는 피염물 위에 원하는 디자인을 청화펜으로 그린 다음 납으로 방염(파라핀, 밀랍)한 후 염액(산성염료)을 칠한다. 계획된 순서대로 여러번 반복, 염색하여 원하는 농도의 색상으로 표현한다. 1차 과정이 끝나면 사각 틀에서 분리하여 두껍게 칠해진 납을 털어서 일부는 제거하고 나머지 납은 갠지나 신문지를 염색물의 위아래에 놓고 다림질의 열을 이용하여 납을 제거한다. 납이 다 제거된 작품들 사이사이에 신문지를 대고 돌돌 말아 증열기에 넣고 100°C 이상의 고온에서 50분~1시간 정도 증열 처리한 후 수세하여 건조시킨다.

용도에 따라 납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염색물을 휘발유에 넣고 중탕처리 하거나 탈납제에 넣어 납을 완전히 제거한 후 염료 고착제(固着劑)<sup>26)</sup>(물1ℓ:고착제5cc)에 약 30분가량 담갔다가 꺼내어 수세하여 건조시킨 후 배접(裱接)<sup>27)</sup>작업을 하여 작품을 완성시킨다.

26) 고착제(固着劑) - 섬유에 매염제나 물감을 효과적으로 고착하는 데 쓰는 약제이며 매염 고착용으로는 토주석, 탄산나트륨, 규산나트륨 등이 있고, 물감 고착용으로는 황산구리, 중크롬산칼륨 등이 있다.

27) 배접(裱接) - 판넬 작업을 하기 전에 종이, 형틀 또는 얇은 널조각 등을 여러 겹 포개어 붙이는 작업이다. 색을 선명하게 하는 장점이 있고 염색물은 풀이 묻어있는 심지로 배접을 하는 것이 용이하다.

본 연구자는 【작품 10, 11】에서 견직물 위에 노방<sup>28)</sup>을 이용하였다. 실크 세리신(Silk Sericin) 분해 기법을 사용한 실크는 아미노산계의 피브로인과 세리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친 부분의 세리신을 효소로서 분해하여 제거함으로써 부드러운 실크를 얻을 수 있다. 실크세리신 분해기법은 노방과 같이 뻣뻣한 실크가 부드러워지고 광택이 나며 부분 디자인에 따라 투명 불투명의 2중 효과가 발생하여 본 연구자의 작업에 있어서 평면에서 오는 한정된 공간감을 탈피하고 중첩되어진 느낌의 다양한 공간감과 '추억'의 이미지에 적절히 배합되는 기법이라 할 수 있다. 제작방법은 노방실크에 흘치기 기법으로 원하는 모양으로 묶은 다음 천 중량의 30~40배 되는 물에 40°C~60°C의 일정한 온도에서 중탄산소다(물1ℓ:탄산소다3g)와 효소(물1ℓ:효소 1.5cc)를 넣고 잘 저은 후 실크를 넣어 1시간 30분 정도 담가둔다. 수세하여 사각 틀에 걸어 산성염료로 염색한 후 증열 처리하여 마무리 한다.

---

28) 노방 - 생사로 짠 얇은 평직물로 일명 노방 또는 주아사라고 부른다. 정련하지 않아서 뻣뻣한 촉감을 가지며 여름 옷감이나 사철 안감으로 널리 쓰인다.

## 2) 작품분석

### 【작품 1】 초자아 (超自我, Super - Ego)



견섬유(silk), 산성염료(acid dye), 91×131 cm

【작품 1】 초자아 (超自我, Super - Ego)

재료 : 견섬유(silk), 산성염료(acid dye)

기법 : 납방염

크기 : 91×131 cm

제작년도 : 2008

인간은 누구나 한번쯤 존재,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다. 태어나고 자라면서 인성이 형성되는데 사람마다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며 예술표현 역시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게 된다. 프로이트<sup>29)</sup>는 인성을 형성하는 체계를 원초아(id), 자아(ego), 초자아(superego)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원초아는 선천적인 본능적 충동의 덩어리로서 정신 에너지의 근본이 되는 완전 무의식이며 일차적 원시 과정이다. 자아는 원초아의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통제하기 위해 발달한 것으로 인간 의식의 일부가 되며 현실적 원리에 따르는 이차적 과정이다. 초자아는 사회문화적인 제 규범이 내면화된 것으로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양심과 이상을 대표하는 기능이다. 본능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 지각된 상태의 행동을 초자아가 통제하게 되는 것이다. 예술 활동은 작가 본인이 경험하고 느껴온 시대의 삶을 작품에 투영하여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인성을 형성하는 체계들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다. 본인은 사회적인 현실과 관계되는 자아의 경험에서 발달되어 오는 초자아에 대한 표현을 채송화에 감정이입 시키고자 하였다. 초자아는 쾌락이나 현실적인 것보다는 이상적이고 완전한 것을 지향하며 부모의 훈육을 통해 사회 규범이나 가치관이 자아 속에 들어가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의 마음속에 양심이나 도덕심 같은 모양으로 발달해 간다. 온전하지 못

---

29)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 - 정신 분석학의 창시자로 정신분석의 방법을 발견하여 잠재의식을 바탕으로 한 심층 심리학을 수립하였다.

한 형태의 채송화의 유기체들이 공간을 자리 잡으면서 하나의 자아를 형성해 가고 있다. 이 하나하나의 자아들은 형태를 다지면서 완전한 채송화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꽃잎과 유기체들은 면으로 표현하였으며 그림 전체를 아우르는 유선형의 선들은 현재로부터 과거를 회상하게 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다육질의 줄기에서부터 말라버린 나뭇가지를 연상케 하는 이 유선형의 선은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시, 공간을 초월한 또 다른 자아로 볼 수 있다. 중반부의 어두운 블루 빛 회색 배경을 기점으로 상반부는 과거의 공간이며 하반부는 현재의 공간을 뜻하는데 과거의 자아들이 생성되고 분열되면서 새로운 다른 형태의 자아로 재탄생 되는 것이다. 이는 급속한 과학문명의 발달로 정신적 불안감과 위기감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자아를 의미하는 것이며 현실세계를 탈피하고 동심으로 돌아가고픈 욕구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본능에 의한 자아들은 지각적인 초자아의 통제 하에 철저히 억압되어 작품 하반부에 여러 겹의 유기체에 둘러싸여 있는 채송화 꽃으로 표현되고 있다.

색채는 상반부에 채송화의 대표적인 분홍(Pink)칼라와 하반부의 자연 특유의 초록빛(Green)계열로 표현하였고 시간의 연속성을 나타내어 주는 유선형의 선들 역시 카키(Khaki)계열로 운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작품 2】 기다림 (Awaiting)



견섬유 자카드(silk jacquard), 산성염료(acid dye), 103×146 cm

## 【작품 2】 기다림 (Awaiting)

재료 : 견섬유 자카드(silk jacquard), 산성염료(acid dye)

기법 : 납방염

크기 : 103×146 cm

제작년도 : 2008

인간은 누구나 순수하고 따뜻했던 과거의 시간을 그리워하고 또 그러한 순간들을 기다리게 된다. 모든 것이 신비롭고 마냥 즐거웠던 어린 시절부터 한 때 사랑했던 사람과의 영원한 사랑을 꿈꾸었던 순간까지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행복했던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추억들을 꿈꾸고 기다리게 된다. 추억을 상징하는 한 송이의 채송화가 보일 듯 말듯 수줍은 듯이 어느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중심부에서 뿔어져 나오는 여러 겹의 유기체들과 함께 여인의 뒷모습을 연상케 하는 배경 부분은 납으로 분사기법을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작품의 전체적인 구도는 크롭트 테크닉(Cropped Technique)기법을 사용하였는데 전체적인 화면에서 어느 한 부분을 자르기 기법으로 사용하여 확대시킨 아름다움을 재구성하여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여성화가 조지아 오키프<도판4><sup>30)</sup> 역시 크롭트 테크닉 기법을 사용하였는데 이 기법은 꽃의 어느 한 부분을 크게 확대하여 사실적인 모습과 반추상적인 모습을 교차시켜 배경을 2차원적인 평면으로 구성하여 주제를 의미하는 대상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크기가 다르고 채도가 낮은 채송화의 형상들이 화면을 구성하고 물 흐르듯 꽃과 꽃 사이를 지나는 물결무늬의

---

30) 조지아 오키프(Georgia O'Keeffe, 1887~1986) - 미국의 대표적인 여류화가이다. 자연을 확대시킨 작품을 주로 그렸으며 서유럽계의 모더니즘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추상 환상주의 이미지를 개발하여 20세기 미술계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했다. 크롭트 테크닉 기법은 1920년대 작품에 주로 사용되었다.

유동적인 선들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어 주는 역할을 한다.

전체적인 꽃의 칼라는 붉은빛이 도는 빨강(Red)으로 표현하였는데 채도가 낮은 빨강은 안정감을 뜻하며 채도가 높은 빨강은 환희, 행복감, 사랑의 감정을 자극하는 색채로 표현되었다.

**【작품 3】 향연 (Mother's scent)**



견섬유(silk), 산성염료(acid dye), 103×145 cm (2P)

【작품 3】 향연 (Mother's scent)

재료 : 견섬유(silk), 산성염료(acid dye)

기법 : 납방염

크기 : 103×145cm (2p)

제작년도 : 2008

어릴 적 어머니의 품속을 생각해 보면 따뜻하고 푸근한 느낌이다. 학교 길에 어머니가 안계시면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를 찾으러 다니고 밤에 악몽을 꾸거나 잘못된 일에 회초리를 맞을 때면 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던 기억이 난다. 그럴 때마다 한결같은 어머니의 품에서 나는 향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약과도 같은 것이었다. 어머니 품속의 체취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서 채송화의 꽃잎을 연상케 하는 유기체들을 차곡차곡 쌓아 중첩<sup>31)</sup>의 효과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중첩<도판3>의 효과는 평면상에서 공간감을 구현하는 표현방법으로 깊이감과 은은함이 느껴진다. 이러한 시각적인 효과를 기대하면서 겹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면세계의 감정들을 끌어내어 유기체의 중첩 효과를 이용하여 다양한 의미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유동적인 선들은 현대 사회의 생존 경쟁과 중압감, 각박함, 반복적인 현실 세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복잡하고 어지러운 현실 세계에서 인간들은 따뜻하고 푸근한 어머니의 품속을 그리워하고 갈망하게 되는 것이다. 중반부의 여러 겹의 중첩되어진 유기체들은 어머니의 품속을 의미하며 만물의 근원인 자연을 뜻하는 초록(Green)과 파랑(Blue)계열의 색을 넣어 복잡한 화면에 안정감을 주고자 하였다. 주황(Orange)과 분홍(Pink)의 채송화는 큰 유기체의

---

31) 중첩 - 여러 층이 겹쳐있거나 포개져 있는 것

폼속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 역시 빠르게 변화하는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엄마 폼속의 편안함을 찾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자아를 의미하고 있다. 정지  
되어진 모습의 채송화는 수술부분을 더 길고 풍성하게 하여 운동감을 표현  
하였다.

**【작품 4】 꽃들, 바람을 가지고 놀다(Play with flowers, wind)**



견섬유 자카드(silk jacquard), 산성염료(acid dye), 110×76 cm

【작품 4】 꽃들, 바람을 가지고 논다(Play with flowers, wind)

재료 : 견섬유 자카드(silk jacquard), 산성염료(acid dye)

기법 : 납방염

크기 : 110×76 cm

제작년도 : 2008

인간은 빠르게 변화하는 긴장된 사회 속에서 자유를 갈망하고 휴식을 취하고 싶어 한다.

현재의 불안감에서 벗어나 순수했던 감성을 통해 잃어버린 낙원을 찾고 과거의 추억거리들을 떠올리면서 동심세계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이와 같은 동심의 세계로 돌아갈 때 인간은 정서적인 안정을 얻게 되고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매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

화면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면의 표현은 모든 인간들이 한번쯤은 갈망하고 그리워하는 자유의 공간이며 동심의 세계를 의미한다. 겹겹이 쌓여있는 원형모양의 유기체들은 【작품 3】 과 같이 중첩의 효과를 나타내어 평면에서의 공간감을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색채는 분홍(Pink)에서 보라(Violet)계열로 단계를 주어 인간적이며 따스한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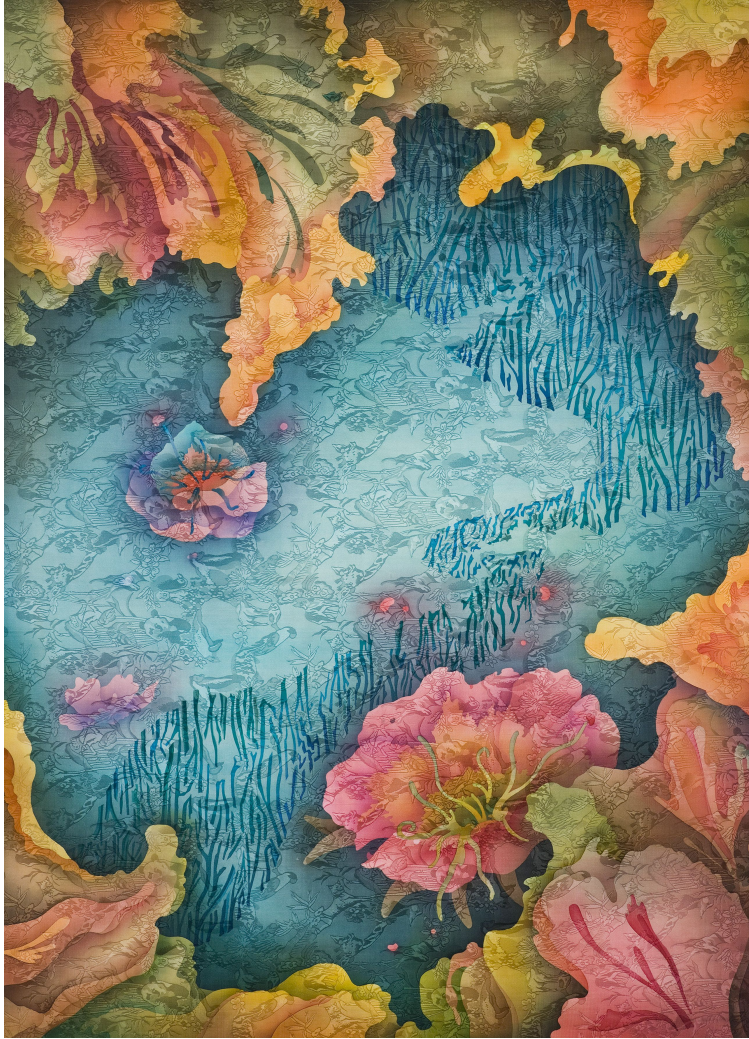
채송화가 바람에 날리는 모습을 보면 마치 바람을 벗 삼아 춤을 추고 있는 느낌이 든다. 줄기와 붙어 있어 고정되어져 있지만 자유롭게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채송화의 모습을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위에서 본 모습과 옆에서 본 채송화의 모습을 표현하였으며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한 채송화의 모습을 보면 느껴지는 감정들도 다양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각자 경험하고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의 영속성을 나타내어 주는 유동적인 선들의 표현은 밝은 갈색 (Light-Brown)과 노랑(Yellow)을 사용하여 평화와 휴식을 의미하고 화면의 울동감을 부여하고자 물결무늬로 표현하였다.

채송화가 바람을 타고 훨훨 날아갈 때 연구자의 마음속 추억에 감흥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작품 5】 내가 채송화처럼 조그마했을 때

(When I was little like a Moss Rose)



견섬유 자카드(silk jacquard), 산성염료(acid dye), 81×114 cm

【작품 5】 내가 채송화처럼 조그마했을 때

(When I was little like a Moss Rose)

재료 : 견섬유 자카드(silk jacquard), 산성염료(acid dye)

기법 : 납방염

크기 : 81×114 cm

제작년도 : 2008

눈오는 날이면 비료포대를 들고 올라갔던 유치원 오르막길, 커다란 교문을 두고 항상 넘어 다녔던 초등학교 울타리, 명절 때면 옹기종기 모여서 윷놀이를 했던 할머니댁 마당, 아버지와 길다란 낚싯대를 들고 활보했던 강화도의 어느 바다... 이 모든 곳들은 연구자에게 있어서 추억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어렸을 적 무한한 꿈의 무대였던 장소들을 보면 아련하고 애뜻한 감성을 자극하게 된다. 또 그렇게 크고 멋지게 보였던 풍경들이 지금은 작고 빛바랜 퇴색되어진 공간에 불과한데 이러한 추억의 공간들은 급속한 산업발달로 인해 변형되어지거나 없어지기도 한다. 단지 마음속에 그려 넣었던 추억의 기억들을 꺼내어 봄으로써 회상에 잠기게 되는 것이다.

【작품 5】에서는 다양한 색채 속의 공간감 표현을 중점적으로 나타내려 하였다. 추억의 공간을 상징하는 유기체들은 작품의 프레임에 둘러싸여 있으며 중앙에 넓게 자리 잡은 푸른빛(Blue)계열의 공간은 광활한 자연을 의미한다. 추억을 상징하는 유기체들이 광활한 자연의 품속으로 혼연일체(渾然一體)되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중반부의 물결무늬의 유동적인 선들을 삽입하였다. 재료는 동물 모양의 견섬유 자카드(silk jacquard)를 사용하여 어릴 적 무섭고 웅장하게만 보였던 자연물들을 친숙하게 재구성하여 표현하였다. 유기체들은 녹색(Green), 노랑(Yellow), 주황(Orang), 빨강(Red)을 사용하여

밝고 생동감 넘치는 추억의 공간을 상징하며 자연을 상징하는 중반부의 넓은 푸른빛(Blue)계열의 공간은 맑고 투명하게 표현하였다.

**【작품 6】 영광 속에 위치하다(Positioned in the glory)**



견섬유 자카드(silk jacquard), 산성염료(acid dye), 91×97 cm

【작품 6】 영광 속에 위치하다(Positioned in the glory)

재료 : 견섬유 자카드(silk jacquard), 산성염료(acid dye)

기법 : 납방염

크기 : 91×97 cm

제작년도 : 2008

누구나 인간사에 있어서 가장 찬란히 빛나고 아름다운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각기 다른 영광의 순간들을 떠올릴 것이다. 이는 개인마다 성장하면서 겪었던 감정과 경험, 기억들을 재생시키는 시각적인 표현수단인 매개체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 역시 성장하면서 느꼈던 감정들과 기억들을 재생하는 매개체로 채송화를 선택하였다. 꽃은 생성, 변화, 소멸, 순환이라는 과정을 지닌 존재로서 인간의 탄생, 성장, 죽음으로 이어지는 순환과정과 흡사하며 인간사와 견주어 표현하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채송화의 만개한 모습을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으로 감정이입 시키고자 하였는데 이 모습이 인간의 삶 중에서도 가장 찬란했던 모습을 표현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작품 2】와 같은 크롭트 테크닉(Cropped Technique)기법으로 꽃잎과 수술의 양을 다르게 하여 채송화의 가장 절정인 모습을 극대화 시켜 재구성하였다. 만개한 모습 중에서도 위에서 내려다 본 모습을 선택하였는데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느끼는 감정이 다르듯이 연구자의 주관적인 느낌으로 가장 빛이 나고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절정인 순간을 표현하기 위해 꽃 전체에 빨강(Red)과 분홍(Pink)을 사용하여 환희, 행복감, 열정의 감성을 자극하고자 하였고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어 주는 유동적인 선은 청록(Bluish Green)을 사용하였으며 수술 주변

의 노랑(Yellow)의 사용은 기쁨, 즐거움을 의미한다.

【작품 7】 이숙(異熟, Another growth)



견섬유 자카드(silk jacquard), 산성염료(acid dye), 105×73 cm

【작품 7】 이숙(異熟, Another growth)

재료 : 견섬유 자카드(silk jacquard), 산성염료(acid dye)

기법 : 납방염

크기 : 105×73 cm

제작년도 : 2008

인간은 저마다 자신의 의지대로 삶을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다. 결정된 삶 속에서는 만족감을 느끼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이 교차 된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은 만족감을 느끼는 삶을 꿈꾸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삶을 겪고 나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게 된다. 어떠한 일을 결정하면서 원인과 결과의 성질이 다름을 일컫는 말로 불교에서는 이숙(異熟)이라고 한다. 인간은 태어나 성장기를 통해 성인이 되며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성숙되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키가 작은 채송화 무리들이 자신의 색을 발산하면서 성장하고 있다. 같은 토지에서 똑같은 햇볕과 물, 양분을 받으면서 성장하는데 제각각 다른 색과 모양으로 자신의 매력을 표현하고 있다.

주로 땅에 고정되어 성장하는 채송화에 자유를 갈망하는 심상의 감정이입과 횡단하는 느낌의 줄기와 잎을 넣어 이상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줄기에 고정된 채송화는 세속과 얽매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또 방향성을 가지고 횡단하는 줄기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유동적인 선을 위에서 아래로 방향성을 주어 단조로울 수 있는 화면의 다양성을 강조하였다.

과거의 회상을 의미하는 회색(Gray)을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빨강(Red), 노랑(Yellow), 주황(Orange), 분홍(Pink), 카키(Khaki)등의 화려한 색채를 사용

하여 현실세계에서 읽매여 있지만 이상세계를 계속적으로 추구함을 나타낸다.

【작품 8】 회귀(回歸)



견섬유 자카드(silk jacquard), 산성염료(acid dye), 89×127 cm

【작품 8】 회귀(回歸)

재료 : 견섬유 자카드(silk jacquard), 산성염료(acid dye)

기법 : 납방염

크기 : 89×127 cm

제작년도 : 2008

현대사회는 인간이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한 결과 철학적 비판정신을 상실하며 인간이 만든 환경에 지배되고 있는 모습을 안고 있다. 현대의 가장 두드러진 실현인 과학, 공업, 기술의 발전은 오히려 인간을 소외시키고 있으며 대량생산인 경제체제는 새로운 시장경제의 논리를 창출하여 심지어는 인간의 취미, 성향까지도 조절하고 인간본연의 필요나 인간의 정신적 추구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의 양식으로 변화 되어져 가고 있다.<sup>32)</sup>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은 현재보다 나은 삶을 꿈꾸고 있으나 반복되는 생활을 하면서 과거 본연의 순수했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작품 8】에서는 한 바퀴 돌아 제자리의 모습을 찾고 싶어 하는 회귀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향수의 모습을 시각화 하여 우리 인간의 감성을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상반부와 하반부의 굴곡 있는 유기체들은 빠르게 발전되어 온 혼란스러운 현실 세계를 의미한다. 채송화의 형상을 거꾸로 배치하여 위에서 아래로 성장하는 역방향으로 표현하여 관찰자로 하여금 불안한 느낌을 받게 한다. 이는 순수한 본 모습으로 되돌아오고 싶어 하는 회귀성을 더욱더 강조해 준다. 그리고 【작품 7】과 같이 채송화 줄기에 고정되어진 형태는 속세에 얽매어 있음을 의미하고 유동성이 있는 선은 물이 흐르는 듯한 형상으로 시간성을 의미한다.

---

32) 박은영, 『현대인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원초적인 심상표현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993, P1

재료는 물결무늬의 견섬유 자카드(silk jacquard)를 사용하여 모천회귀(母川回歸)<sup>33)</sup>의 주제성을 더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전체적으로 노랑(Yellow), 주황(Orange)을 사용하여 메마른 감성의 현실 사회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였고 그리움을 상징하고 땅의 비옥함, 나무 등을 연상케 하는 갈색(Brown)은 회귀본능을 자극시키는 색채로 사용되었다.

---

33) 모천회귀(母川回歸) - 연어, 송어 등의 물고기가 바다에서 자란 후 알을 낳기 위하여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돌아오는 성질.

【작품 9】 감춰진 열정(Concealed passion)



견섬유 자카드(silk jacquard), 산성염료(acid dye), 76×107 cm

【작품 9】 감춰진 열정(Concealed passion)

재료 : 견섬유 자카드(silk jacquard), 산성염료(acid dye)

기법 : 납방염

크기 : 76×107 cm

제작년도 : 2008

열정이란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으로 이 작품에서 본인이 표현하고자 했던 열정은 어린 시절 꿈꾸었던 열정을 의미한다.

세상의 중심에서 주인공인 소녀가 미래를 대비해 꿈꾸었던 모든 일들, 그 꿈을 향해 노력하고 전진하고자 했던 그 아름다운 열정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어릴 적에는 꿈도 많고 포부도 많아서 그것을 향해 열정을 쏟아 넣지만 현실세계는 꿈과는 다른 막연하고 어려운 난관이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 어렵고 험난한 세상을 뚫고 헤쳐 나가기 위해서 잠재의식 속에 숨어 있는 그 자신만의 열정을 뽑아내기란 많은 노력과 힘이 들게 마련이다. 그러한 잠재의식 속의 열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꿈틀거리는 생명력을 하반부의 꽃잎이 여러 겹으로 중첩되어진 유기체로 표현하였다. 그 유기체들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꿈을 향해 질주하여 나중에는 그 꿈을 이루게 되는 과정을 상반부의 활짝 만개한 꽃으로 표현하였다.

열정, 희망의 가장 대표색인 빨강(Red)을 꽃의 주조색으로 사용하였고 보라색(Violet)과 청록색(Bluish Green)은 힘과 에너지, 생명력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감흥을 주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신비로운 색채로 사용되었다.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은 많은 노력을 하게 되고 기쁨과 슬픔 등 예기치 못한 현실에 부딪히게 된다. 이 예기치 못한 현실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가에 따라서 자기가 희망하던 일이 성취되거나 또는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이 작품에서는 인간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현실세계를 열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겨내고 노력하는 인간의 의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10】 그리움의 이야기(Story of nostalgia)**



견섬유 (silk), 산성염료(acid dye), 79×65 cm

【작품 10】 그리움의 이야기(Story of nostalgia)

재료 : 견섬유(silk), 산성염료(acid dye)

기법 : 납방염, 실크세리신 분해

크기 : 79×65 cm

제작년도 : 2008

우리가 항상 과거의 기억을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것에는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 그것은 어떤 사물을 대할 때 그 사물의 역할과는 상관없이 주관적인 개인의 의미를 부여할 때를 뜻한다. 어떤 이는 행복과 환희를 연상케 하는 사물이 어떤 이에게는 불행과 슬픔을 상징하는 사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주변 세계와 현실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과거 기억속의 이미지들은 현재 경험의 이미지로 얻어진 모습으로 형상화 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대사회에 대한 기억들은 어딘가에 구속되어 있고 압박받는 심리에서 출발하여 혼란, 부적응, 소외, 냉소 등과 같은 차갑고 메마른 감정의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 거대한 사회 속에서 기억의 흔적<도판2>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모색해 보고자 한다.

표현방법으로는 견섬유에 납방염으로 작업한 위에 실크 세리신(Silk Sericin) 분해기법을 사용한 노방으로 다양한 공간감과 중첩의 효과를 강조하였다. 이는 가리워진 형태를 적절히 활용하여 은은하면서 깊이감 있는 표현과 중첩되어진 형태에 따라서 고정된 이미지가 아닌 변화하는 감정의 표현들을 아련한 기억 속에 떠오르는 추억의 감성으로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하다.

세월의 흐름을 연상케 하는 유선형의 선들은 노랑(Yellow)에서 어두운 초

콜렛(Dark Chocolate)색으로 그라데이션(Gradation)하여 따뜻함과 포근함을 나타내는 그리움의 색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11】 장미빛 인생(La Vie En Rose)**



견섬유 (silk), 산성염료(acid dye), 68×88 cm

**【작품 11】 장미빛 인생(La Vie En Rose)**

재료 : 견섬유(silk), 산성염료(acid dye)

기법 : 납방염, 실크세리신 분해

크기 : 68×88 cm

제작년도 : 2008

장미빛 인생은 불투명한 미래를 보고 좌절하기 보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속 사람들의 인생을 의미한다.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활짝 핀 꽃은 모든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난 성공한 자신의 모습과 비추어 상상하게 된다.

노방에 동심원의 형태로 흘치기 하여 실크 세리신(Silk Sericin) 분해 기법을 사용하였는데 동심원의 표현은 소용돌이 속 고난과 역경을 의미한다.

**【작품 10】** 과 같은 기법으로 중첩의 효과를 강조하였는데 이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이미지들을 서로 중첩시켰을 경우 각각의 독립된 이미지들만으로 표현할 수 없었던 새로운 느낌들을 전달한다. 채송화의 만개한 모습은 납을 이용한 분사기법으로 표현하여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인간상을 작품 속에 투영시켰다.

안정적이며 따스한 느낌을 주는 분홍색(Pink)과 빨강색(Red)은 뚜렷하게 남아있는 행복했던 기억들을 의미하고 주변의 어두운 회색(Dark Gray)은 언제인지 무엇인지 희미하고 아련한 슬픔과 원망의 기억들을 의미한다. 이 교차되어진 기억들은 과거 자신이 살아온 삶의 깊이를 느끼게 하는 회상의 감정들을 상징한다.

### Ⅲ. 결론

본 연구는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인들의 각박하고 메마른 사회생활 속에서 점차 잃어가는 따뜻한 마음과 동심의 세계를 불러일으키고자 채송화를 매개체로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정서적인 아름다움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여 추억이라는 이미지를 도입하여 잠시나마 옛날로 돌아가 정서적인 안정을 찾고 현재의 삶을 회고하고 반성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통해서 연구자가 표출하고자 했던 작업과정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채송화의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내용적 측면에서는 주관적일 수 있는 추억이라는 감성적인 자극을 이끌어 냈고 조형적인 측면에서는 채송화의 생애주기를 바탕으로 인간사의 과정을 표현하였다. 화폭 속에 추억이라는 정적인 면과 인간사 과정이라는 동적인 면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공간에서의 제한적인 표현의 한계를 뛰어 넘고자 하였다.

둘째, 본 작품에서 채송화는 연구자가 소중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추억을 표현하기 위해 상징화하였다. 작품 속에서 채송화가 만개하기 전 꽃봉오리의 모습, 활짝 만개한 모습, 춤을 추듯 날아가는 모습은 우리가 어릴 적 꿈꾸던 미래를 향해 노력하는 고난과 역경, 생명력, 그 꿈을 이루었을 때의 성취감 등 여러 방면으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인간의 삶을 표현하였다. 이는 채송화의 이미지를 보고 본인만이 가질 수 있는 주관적인 추억의 감흥을 불러일으키고 상상력을 자극시켜 내적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셋째,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기 위해 유동적인 선의 이미지와 유기체들을 중첩효과로 나타냈으며 서정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여백의 미를 살렸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생을 다할 때까지 겪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고정되어 있지

않는 동적인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예술작품을 할 때 작가는 의도하고자 하는 의미를 작품 속에 표현하고자 한다. 주관적일 수 있는 작가의 의도가 작품을 보고 느낄 상대방에게 얼마만큼 감흥을 주느냐에 따라 책임감을 갖게 된다.

본 연구자는 작품속의 채송화를 통해 각자의 개인의 추억이 현대인들의 감성적인 내면세계를 자극하도록 하였다. 꿈을 향해 질주하는 사람들에게 과거를 되돌아보고 자기반성과 회고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표면적으로만 표현하는 작품연구가 아닌 다양한 작품 주제를 가지고 염색이 갖는 독특한 표현기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상대방에게 감성적인 자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의미가 담겨있는 작품을 하고자 한다.

## 참 고 도 판



<도판1.> 채송화의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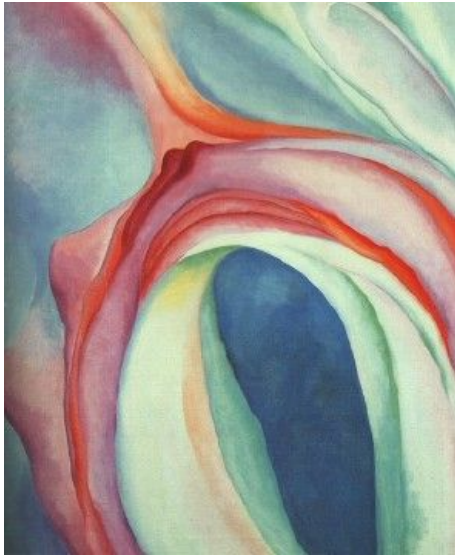
<도판2.> 추억, 기억의 잔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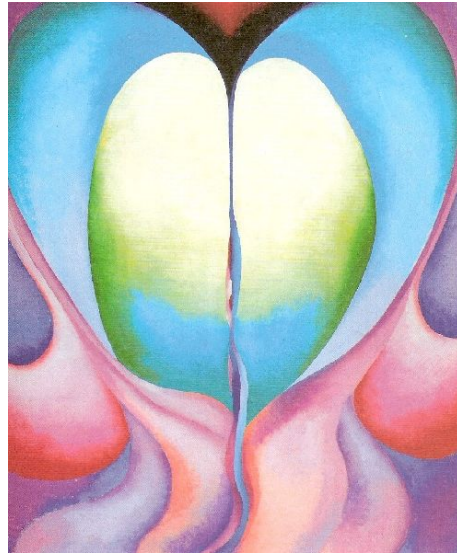
자코모 발라

추상적 속도 - 자동차 지나가다, 19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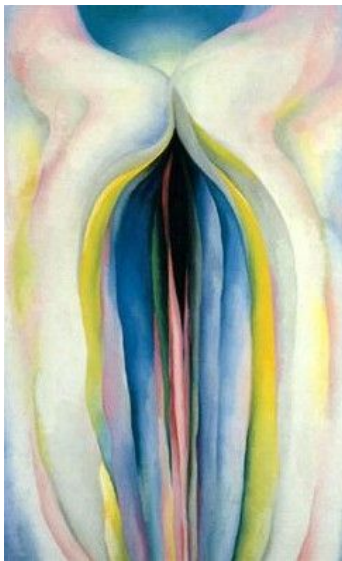
<도판3.> 중첩 이미지



Music - Pink and Blue II  
캔버스에 유화, 88.9×74 cm, 1918



Series I, Number 8  
캔버스에 유화, 50.8×40.6cm, 1919



Gray Line with Black, Blue and Yellow  
캔버스에 유화, 121.9×76.2cm, 1923



Red Canna  
캔버스에 유화, 91.4×76.2cm, 1923

<도판4.> 조지아 오키프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곽대웅..., 『디자인·공예 대사전』, 한국사전연구소, 1997
- 김삼수, 『공예염색학』, 영남대학교 공과대학 섬유패션학부, 2000
- 김정호, 이미석, 『우리 옷 만들기』, 한남대학교 출판부, 2004
- 김호정, 『패션소재표현기법』, 교학연구소, 2007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대전』,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정보관실, 2002
- 윤평섭, 『한국의 화훼 원예식물』, 교학사, 2001
- 이상희,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넥서스 Books, 2004
- 이우철, 『한국식물명의 유래』, 일조각, 2005
- E.H. 콰브리치, 최민 역, 『서양미술사』, 열화당, 1977
- 직물가공 연구회, 『직물염색가공』, 학문사, 1999
- 조지딕키, 『미학 입문』, 서광사, 1980
- 플로렌스 H. 크렌, 윤수현 역 『한국의 야생화 이야기』, 민속원, 2003
- 차건성, 『화훼 원예대백과』, 오성, 1996
- 현진오, 『가을에 피는 우리 꽃 336』, 신구문화사, 2004

### 【학위논문】

- 김경순, 『기억의 이미지를 통한 조형표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8
- 김지영, 『기억 이미지를 통한 자기애 표현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7

- 김혜원, 『어린 시절의 추억에 잠기다』 ,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7
- 신정혜, 『색채를 통한 꽃의 조형적 표현』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4
- 전성은, 『꽃 이미지에 의한 잠재된 추억의 과장』 ,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7
- 진숙미, 『추상표현을 통한 '세월'이미지의 시각화 연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5

### 【정기간행물】

『월간사진』

『한국사진』

# **ABSTRACT**

## **A Study on Expressing a State of Mind Through the Image of a Moss Rose**

**Cho, Yeon Jung**

**Dept. of Craft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Due to the rapid technological advancement, people in the modern era live with mental instability and crises. They desire to escape from the rapidly-changing reality of struggle for existence and the exigency and pressure from the society, and to return to their childhood and reminisce those days. Human psychology of such self-reflection in reality through reminiscence of the past and yearning for beautiful memories is an essential expressive subject in this study. This study formatively analyzes a childish innocence through the image of a Moss Rose which is symbolized as reminiscence, and is translated to a work of art by a subjective perspective and interpretation.

The reminiscence plays an important role by providing motivation to modern people who are losing dreams and innocence surrounded with the

complex reality, and by making them to look back with placidity on the past they had lived. I have analyzed the image of a Moss Rose which can represent such diverse expression of feelings. As it repeats birth, change, cycle, and dissolution, the Moss Rose portrays the history of mankind. Thus, by expressing within the picture frame many stories of the past that surpass a generalized meaning of the flower, I attempt to underscore the theme of reminiscence.

Every individual has different past and experiences; likewise, a Moss Rose represents my childhood and illustrates an empirical factor. In terms of the content of expression, I have elicited the symbolic nature of memory from my personal emotions and memories I collected and experienced while growing up. In the formative sense, I have portrayed liveliness through observing the image of the Moss Rose in various angles to deliver visual pleasure. On top of it, I have also inserted fluid lines which emphasize the nature of time, for the purpose of recollecting the memories; thus, I have attempted to render diversity in the sense of space that may be limited to a flat surface.

As for the making of the work, I used wax-resist dyeing, which contains delicate overlapping of dyes as it penetrates the fabric and reiteration of material and design, in order to demonstrate the sense of movement of a Moss Rose and perpetuation of time. Wax-resist dyeing is a method in which different kinds of wax are melted on a fabric to prevent it from burning. Wax melts easily when heated, and by utilizing the characteristic of dyes unable to penetrate the melted wax, one can create designs from

the un-waxed areas of the fabric. I used this method because I considered it suitable for portraying my inner self in a unique manner.

This study attempted to delineate my mental expression through the image of a Moss Rose, and I have sought ways to evoke memory of a third person by interpreting personal and psychological susceptibility that portrays an unified space. Using a Moss Rose as a mediator between the present and the past, I have tried to provide an opportunity of self-reflection to people of the present age so that they can recollect and feel their fond memories.